

“안심하고 드세요” 해남 음식점 10곳중 9곳 ‘국산김치’ 사용



해남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김치제조

해남군 관내 음식점 10곳 중 9곳은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한국외식업중앙회 해

남군지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676개소에 대해 국산 김치 사용 전

해남 관내 음식점 김치 취급 574개소 전수조사 해남산만 쓰는 곳 65%...원산지 위반 단속 예정

조사 결과 김치를 취급하는 574개 업소 중 해남산을 포함한 국내산 배추, 고춧가루 사용 비율이 507개소,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춧가루, 배추 중 일부 수입산 사용 32개소, 수입김치 사용이 35개소로 응답 비율이 나왔다.

특히 국내산 김치 사용 음식점 중 해남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김치를 담는 업소의 비율이 약 65%(332개소)로 월등히 높은 것

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중국산 절임배추 파동으로 인해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김치 재료의 생산지를 전수 조사했다.

또한 전남도, 민간 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 음식점, 단체 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산

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 오는 9월 까지 지역 음식점·학교·병원·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 150개소 이상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 등에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통해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관 부착 등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김치를 국산김치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은 우리나라 최대 배추 주산단지로서 김치 중추국의 위상 회복과 김치산업 제도약을 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 한분 한분이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겠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업소 점검 시 해남산 농산물 애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농장별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신청 접수

농촌진흥청 개발 휴대폰·인터넷 통해 서비스 제공

최고기온·강수량 등 10종...기온은 최대 9일 예보

강진군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장별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한다.

농장별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시스템은 기존 기상청 동네예보의 읍·면 단위 정보(5km×5km)와 훨씬 상세화된 '농장단위(30m×30m)'에 초점을 맞춰 농장의 고도, 지형, 지표면의 피복상태 등 기상 정보를 휴대폰과 인

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또, 농장 날씨의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등 10종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중 기온은 최대 9일까지 예보한다.

농장 재해는 고온해, 저온해, 동해 등 15종의 정보를 제공하며 작물의 생육단계에 맞춰 재해위험 여부 및 대응 조치를 최대 9일 전에 알려준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어촌 일손 돕기 구슬땀

다시마 수확철 맞아 노동력 부족...건조장 작업 도와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장흥군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 어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회진면 행정부

지센터 직원들은 지난 13일 다시마 건조장을 찾아 마른 다시마를 거둬들이는 작업을 도왔다.

다시마는 회진 어민들의 주요 소득 원이자 지역 특산품으로, 5월 중순부

터 6월 말까지 수확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가 농번기와 겹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까지 부족하여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다시마 어가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회진면에서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를 위하여 일손 돕기 희망단체들과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일손 돕기에 나선 김형재 회진면장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일이 서툴러 걱정이었지만 직원들의 일손 돕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어민들의 말씀이 힘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면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농·어가의 일손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항·포구 다목적 인양기 설치

5억5000만원 투입 군내면 신기항 등 6개소 설치...일손부족 해소

진도군이 어촌 일손 부족 해결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소형어선 인양을 위해 10톤급 다목적 인양기 6대를 설치한다.

총 5억5,000만원을 투입, 군내면 신기항 등 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다목적 인양기는 수산물과 어망·어구 효율적 인양으로 어촌 일손부족 해소와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소형어선 인양 등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진도군은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후 유지관리와 소규모 보수는 어촌계에서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촌계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군비 50%를 지원,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전문 보수업체와 함께 인양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다목적 인양기를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 가우도 쥘트랙, 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

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 원을 감면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